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12. 6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6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대형업체 상승에 힘입어 82.8을 기록, 그러나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해 체감경기 양극화 심화
 - 전월대비 12.7p 상승하여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 폭은 9월(13.1p), 10월(19.2p) 대비 축소
 -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체감경기는 아직 낮은 상태
 - 대형업체가 30.0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중견업체는 7.1p 상승한 91.7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1.0p 하락한 52.6을 기록해 체감경기 부진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

- 공사물량지수도 대형업체는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체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소폭(5.0p) 상승한 85.7을 기록
 -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대폭(22.2p)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는 소폭(7.7p) 상승하는데 그쳤고, 중소기업체는 도리어 대폭(18.1p) 감소해 52.6을 기록
 - 공종별로는 5월 25일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지연되었던 상반기 공공 토목 발주물량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토목물량지수 26.8p 상승
 - 토목물량지수도 대형업체, 중견업체는 각각 전월대비 50.0p, 34.3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토목 물량지수도 8.8p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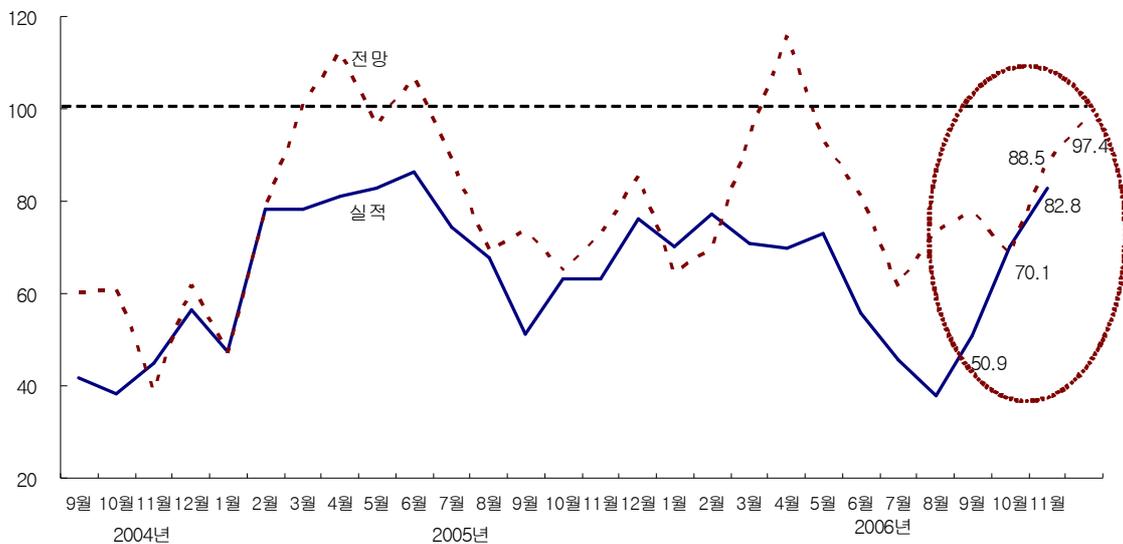
- 자금관련 지수는 10월에 비해 소폭 개선
 -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4.5p 상승한 102.2를 기록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대비 2.9p 상승했으나, 지수 자체는 86.2에 그쳐 아직도 공사대금수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2006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대형 건설업체 체감경기 상승에 힘입어 82.8 기록,
반면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해 체감경기 양극화 더 심화

- 2006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2.8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2.7p 상승하여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그러나 상승폭은 9월(13.1p), 10월(19.2p)에 비해 축소됨.
 - 또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 자체는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아직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30.0p나 상승한 100.0을 기록했고, 중견업체는 7.1p 상승한 91.7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1.0p 하락한 52.6을 기록함.

- 결국 대형업체가 건설업 체감경기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짐.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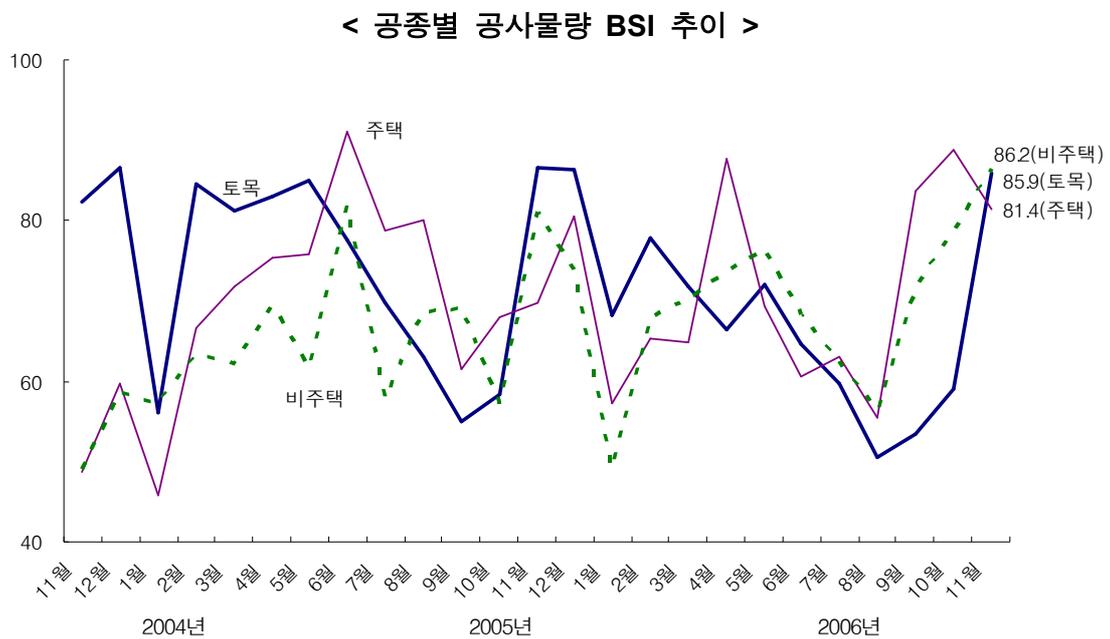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총 합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	50.9	70.1	82.8(88.5)	97.4
규모 별	대형	80.0	100.0	88.9	85.7	100.0	83.3	46.2	33.3	60.0	70.0	100.0(90.0)	130.0
	중견	70.6	71.1	70.6	55.9	62.5	45.5	48.6	48.0	48.1	84.6	91.7(96.0)	91.7
	중소	58.0	57.4	50.0	67.6	53.7	35.0	41.7	31.4	43.5	53.7	52.6(78.0)	65.8
지역 별	서울	79.3	87.5	84.5	75.5	87.2	66.5	50.2	33.4	58.0	71.5	89.9(93.2)	113.3
	지방	57.3	62.3	49.8	64.6	52.3	39.9	38.5	45.0	40.0	67.7	67.7(80.2)	63.7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89.9, 67.7을 기록하여 서울업체의 체감경기가 전월대비 18.5p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에 머물러 서울과 지방업체간 체감경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짐.
- 2006년 12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97.4를 기록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건설경기가 계속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5월 25일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발주가 지연되었던 상반기 공공 발주물량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건설경기의 호전을 전망한 것으로 판단됨.

대형업체 토목물량 상승에 힘입어 전체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5.0p 상승, 반면 중소기업체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18.1% 감소

- 11월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소폭(5.0p) 상승한 85.7을 기록함.
 - 지수가 9월(68.4)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9월(15.8p), 10월(12.2p)보다 작음.



- 공종별로는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여 (26.8p 상승) 85.9를 기록했으며, 비주택도 전월대비 7.5p 상승한 86.2를 기록했으나,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7.5p 하락한 81.4를 기록했음.
 - 토목물량지수의 상승은 지난 5월 25일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발주가 지연되었던 상반기 공공 발주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지난 9월 재개발물량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28.3p나 상승했던 주택물량지수는 재개발, 재건축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5.7	100.0	100.0	52.6	94.2	67.7
	전망	104.2	140.0	104.3	62.2	121.7	67.3
토목	실적	85.9	100.0	95.8	57.9	93.2	70.2
	전망	101.4	140.0	91.3	67.6	117.3	68.0
주택	실적	81.4	88.9	95.7	56.3	85.3	75.6
	전망	86.4	90.0	113.0	51.7	94.3	76.4
비주택	실적	86.2	77.8	113.0	65.6	86.8	85.5
	전망	84.6	100.0	86.4	64.5	90.4	76.6

주 : 실적은 2006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12월 예측지수임.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 건설업체가 10월에 비해 22.2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였고, 중견업체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체는 오히려 전월에 비해 18.1p나 감소한 52.6을 기록했음.
 - 지난 10월에 전월대비 14.2p 상승하여 70.7을 기록했던 중소기업체의 공사물량지수는 다시 크게 감소함으로써 하반기 공공 발주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 건설업체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업체 규모별로 세부 공종별 물량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대형, 중견업체의 경우 공공 발주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50.0p, 34.3p씩 증가한 100.0, 95.8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토목 물량지수가 오히려 8.8p 감소한 57.9에 그쳤음.
 - 업체 규모별 주택 물량지수는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큰 폭(-21.1p)으로 감소하였고, 중견업체도 소폭(-4.3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도리어 주택부문에서 물량이 소폭(4.9) 증가했음.
 - 주로 대형업체의 몫인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대형 건

설업체의 주택물량지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94.2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9.1p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4.6p 감소한 67.7을 기록해 서울, 지방간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었음.

- 2006년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4.2를 기록하여 물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 규모별로는 역시 대형 건설업체가 11월 실적보다 40.0p나 상승한 140.0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견·중소업체는 11월 실적보다 소폭 물량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쳤음.
 - 공종별로는 토목 101.4, 주택 86.4, 비주택 84.6으로 전망하여 11월 실적보다 토목부문의 물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를 통해 연말 공공부문 토목공사 발주에 대한 업체들의 기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자금관련 지수 전월 대비 소폭 개선

- 자금조달지수는 10월에 비해 14.5p 상승한 102.2를 기록하여 9월 이후 계속하여 자금조달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86.2를 기록하여 10월에 비해 2.9p 상승하는데 그쳐 아직도 공사대금수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형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체가 전월에 비해 자금관련 지수가 좀 더 개선된 반면에 중견업체의 자금관련 지수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중견업체의 공사대금수금지수가 전월 대비 17.3p 감소하여, 유일하게 자금관련 지수가 70대선에 머무르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6.2	90.0	75.0	94.6	83.1	95.5
		전망	93.5	90.0	91.3	100.0	91.5	100.0
	자금조달	실적	102.2	130.0	91.7	81.6	112.3	80.6
		전망	105.7	130.0	100.0	83.8	114.4	90.1
인력	수급	실적	109.3	120.0	104.2	102.6	115.8	95.5
		전망	93.8	100.0	95.8	84.2	97.9	85.1
	인건비	실적	92.2	90.0	108.3	76.3	97.8	80.1
		전망	78.3	80.0	87.5	65.8	83.0	68.2
자재	수급	실적	103.5	110.0	100.0	100.0	106.4	97.5
		전망	97.6	100.0	100.0	92.1	101.2	90.1
	비용	실적	83.9	90.0	91.3	68.4	91.4	68.2
		전망	83.2	90.0	87.0	71.1	91.4	66.2

주 : 실적은 2006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12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9.3, 103.5를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전월대비 7.8p 상승한 92.2를 기록하였으며, 자재비 지수는 전월 대비 3.3p 감소한 83.9를 기록하였음.